http://dx.doi.org/10.5392/JKCA.2014.14.06.539

대학생의 교우관계, 역기능 가정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Peer Relationship and Dysfunctional Family on Life Adjustment in University

장성화*, 천영희**, 함성수*
공군사관학교*, 사회복지법인 한서기독재단**

Sung-Hwa Jang(911149@hanmail.net)*, Young-Hee Chun(chunyh1001@hanmail.net)**, Seong-Soo Ham(04ham@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우관계, 역기능 가정 및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교우관계와 역기능 가정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대상은 서울 지역에 소재한 3개의 대학생 415명을 대상으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와 중다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교우관계, 역기능 가정,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교우관계, 역기능 가정, 대학생활적응의 하위변인 중 갈등 및 불신과 대학환경적응을 제외한 모든 하위영역에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다회귀분석 결과,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높은 변인은 갈등해결, 문제의 부모, 인정과 관심 순으로 나타난 반면, 그 외 모든 하위변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대학생활 부적응에 대한 예방과 대학생 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심층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하여 시사하고자 한다.

■ 중심어 : | 대학생 | 교우관계 | 역기능 가정 | 대학생활적응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predictors of peer relationship and the dysfunctional family on life adjustment in university. The participants of study were 415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province. A survey was carried out using convenient sampling, and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were conducted.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 for the peer relationship, dysfunctional family and life adjustment in university, all of the subvariables except for conflict, distrust and university of adaptation show significant correlations. Second,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in order of significance, conflict resolution, problem parents, recognition and attention variables significantly affected life adjustment in university. This has implications for the prevention of misfit university students, the related program development, and various policy establishments.

■ keyword : | University | Peer Relationship | Dysfunctional Family | Life Adjustment in University |

I. 서 론

인간의 삶은 크고 작은 변화의 연속적인 과정이며 계속적인 적응이 요구된다. 발달 단계별로 적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대학생 시기는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사회에 나아갈 준비 및 미래에 대한 인생설

접수일자 : 2014년 04월 01일
수정일자 : 2014년 05월 13일
심사완료일 : 2014년 06월 12일
교신저자 : 함성수, e-mail : 04ham@hanmail.net

계가 이루어지는 시기이고, 이것은 그 후 일생을 통해 그의 적응체제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1]. 우리나라의 청소년은 중·고등학생 시절 입시위주의 생활을 주로 경험하고 청소년기 발달과업인 정체성 형성과 성인전기 발달과업인 친밀감 형성 등과 관련되는 다양한 경험을 하지 못한 채 대학생이 되는 것이 일반적 이다. 따라서 이들 대학생이 중·고등학생으로 살아가는 것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한 정도로 상이한 대학에서의 생활을 성공적으로 적응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 된다. 특히 대학생들이 이전에 가져보지 못했던 많은 자율과 책임은 적응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어떤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주어 심리사회적 어려움과 신체적 증상들을 유발시키거나[2], 대학생활에 부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 즉, 대학생이 되어도 새로운 낯선 환경에서 주어진 과제들을 적절하게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면 혼란이 가중되며, 그 결과 학생상담센터를 찾거나 휴학·자퇴를 결심하는 경우도 있다. 심한 경우에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가족과 소속대학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충격을 주기도 한다.

한국교육개발원(2012)에 따르면, 학생10명 중 3명은 휴학 상태에 있고,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1년 핵심 취업연령층(25-29세) 고용률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아졌지만 휴학률은 움직이지 않았다고 보고한다. 이러한 추세는 경기불황과 취업난항으로 인한 휴학도 있겠지만 그 밖에 다양한 이유로 대학생활적응을 잘하지 못하는 대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1]. 또한 권석만(2004)은 서울에 소재한 S대학교의 경우 30-40% 경우가 심리적 부적응을 겪고 있으며, 매 학기 20% 이상의 학생들이 성적부진으로 학사제적, 자퇴, 미등록, 자살, 그리고 사망 등의 이유로 학교를 떠났다고 보고하였다[4]. 그러므로 대학생활적응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과 영향력의 정도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사료된다.

대학생활적응의 초기연구에서는 높은 학업 성취 수준이 성공적인 대학생활적응의 핵심으로 여겼지만[5], 근래에 대학생활적응 개념은 학업 뿐 아니라 개인, 심리, 가족 및 사회적인 측면까지 확장될 필요성이 있다[6][7]. 이러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아존중감,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자아분화, 가족기능, 스트레스, 부모양육태도, 부모자녀관계, 사회적지지, 가족의 의사소통 유형 등이 대학생활적응에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1][8-12]. 지금까지 생태학적 변인군 중에서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체계는 개인변인과 가족변인 등이 포함된 미시체계 변인군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분류된다. 이 선행 연구에서는 개인특성 변인 중 교우관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특히 대학생활적응과 관련된 가족변인 중 역기능 가정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대학생 때가 발달단계상 성인초기에 해당되는 시기로 청소년에 비해 가정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활적응과 관련된 개인변인의 교우관계와 가족변인인 역기능 가정변인 등의 변수로 연구하였다.

대학교 1학년 시기에는 부모와의 독립을 추구하고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며 고등학교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하여 자신의 학업적 적성을 보다 많이 고려하게 된다는 점에서 교우관계가 중요시 된다. 특히 이 시기에는 자신의 능력, 적성, 신체적 매력 등을 인지함에 있어서 부모보다 또래들의 평가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1][11][14]. 이를 바탕으로 개인관련 변인들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교우관계가 만족할수록 자아존중감과 자아개념이 높고 정서적으로 안정적이며, 학교적응과 학업성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16-18]. 또한 학교에서 또래들의 소외와 놀림을 당하거나 따돌림과 폭력의 대상이 되어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가지며, 학습부진, 중도탈락률 증가 등의 다양한 문제로 인해 학교 부적응 문제가 나타났으며[19],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교우관계는 안정된 학교생활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사회적지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업 및 사회 정서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20]. 이로써 교우관계는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22]. 청소년 후기의 대학생들도 학교생활적응에 또래

의 영향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교우관계가 대학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역기능 가정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에 대해 대학생활적응과 자아분화, 스트레스 대처방식, 정신건강의 하위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우울증, 강박증이 낮고 적극적 대처방식을 취하며 가족 내 투사와 퇴행이 적게 일어나고 인지와 정서가 잘 분리되어 있을수록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 그리고 부모에 대한 애착은 전체 대학생활적응 및 하위요인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개인-정서적 적응, 대학에 대한 만족도에 모두 상관이 나타났으며, 애착이 잘 형성될수록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1]. 또한 분리개별화와 가족응집력이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연구에서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이라는 측면에서 독립과정이 갈등적일수록, 독립적인 태도가 약할수록 심리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고 학업적응 수준이 낮았으며 독립과정에서 갈등이 적을수록 학업적응, 취업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적 독립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적응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3][24]. 그러나 김미선(2011), 장성화와 진석언(2010)은 가족변인인 가족건강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25][26]에 대한 연구들이 초등학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경우가 많으므로 대학생 때에도 역기능 가정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런 관점에서 대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나타난 교우관계, 역기능 가정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각 변인들과의 관계를 부분적으로만 살펴보았을 뿐 이 변인을 모두 고려하여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는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나타난 시사점을 바탕으로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즉 개인변인의 교우관계와 가정변인의 역기능 가정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대학생의 교우관계, 역기능 가정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대학생의 교우관계, 역기능 가정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대상자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서울에 소재한 사립 대학교 3개의 대학교에서 심리학개론 및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 41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초기에 474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포하였으나 회수된 질문지 중 문항에 끝까지 응답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한 응답지 59부를 제외한 나머지 415명을 최종 자료로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의 일반적인 특징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 현황

변수	구분	비율
학년	1학년	210(50.6%)
	2학년	149(35.9%)
	3학년	36(8.7%)
	4학년	20(4.8%)
성별	남자	131(31.6%)
	여자	284(68.4%)
아버지학력	중졸이하	69(16.6%)
	고졸	198(47.7%)
	전문대졸	34(8.2%)
	대졸	92(22.2%)
	대학원졸(석사)	16(3.9%)
	대학원졸(박사)	3(0.7%)
어머니학력	중졸이하	91(21.9%)
	고졸	244(58.8%)
	전문대졸	23(5.5%)
	대졸	44(10.6%)
	대학원졸(석사)	7(1.7)
	대학원졸(박사)	2(0.5%)
종교	기독교	140(33.7%)
	천주교	39(9.4%)
	불교	53(12.8%)
	무교	178(42.9%)
	기타	5(1.2%)

2. 연구 도구

2.1 교우관계 척도

본 연구에서는 교우관계 척도를 측정하기 위해 Bukowski, Hoza와 Newcomb(1987)가 개발하고 Parker와 Asher(1989)가 수정한 교우관계를 이현정(1994)이 한국판으로 수정 및 번안한 것을 다시 김기형(2006)이 재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27-30]. 이 척도는 전체 40

문항이며, 인정과 관심, 갈등해결, 갈등과 불신, 도움과 지도, 교제와 오락, 친밀한 의사교환 등의 6가지 하위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기형(2005)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인정과 관심 .88, 갈등해결 .65, 갈등과 불신 .64, 도움과 지도 .88, 교제와 오락 .67, 친밀한 의사교환 .78 그리고 전체 신뢰도 Cronbach α= .85로 나타났고, 본 척도의 하위영역별(인정과 관심, 갈등해결, 갈등과 불신, 도움과 지도, 교제와 오락, 친밀한 의사교환) 신뢰도는 각각 .86, .76, .72, .86, .86, .78이며, 전체 .78로 나타났다

2.2 역기능 가정 척도

본 연구에서는 역기능 가정을 측정하기 위해 김홍규(2003)가 개발한 척도를 민동일과 양정미(2006) 재사용한 것을 이용하였다[31][32]. 이 척도는 전체 23문항이며, 문제의 가정, 문제의 부모, 가족갈등 문제, 역기능적 가정 등의 4가지 하위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동일과 양정미(2006)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문제의 가정 .62, 문제의 부모 .68, 가족갈등 문제 .88, 역기능 가정 .86 그리고 전체 신뢰도 Cronbach α= .93로 나타났고, 본 척도의 하위영역별(문제의 가정, 문제의 부모, 가족갈등 문제, 역기능 가정) 신뢰도는 각각 .86, .76, .72, .86이며, 전체 .93로 나타났다.

2.3 대학생활적응 척도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활적응 척도(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는 Baker와 Siryk(1984)가 제작한 것을 양혜선(2004)이 재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33][34]. 이 척도는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자기보고식으로 알아보는 검사로 총 67문항이며,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 대학환경적응으로 4가지 하위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해선(2004)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값은 .90이었다. 이 연구의 전체 Cronbach's α값은 .89로 나타났으며, 하위변인의 Cronbach's α값은 학업적응 .82, 사회적응 .82, 개인정서적응 .79, 대학환경적응 .78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각 하위영역별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둘째, 대학생의 교우관계, 역기능가정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대학생의 교우관계, 역기능가정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대학생의 교우관계, 역기능적 가정,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

대학생의 교우관계, 역기능적 가정,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에 의하면, 교우관계와 역기능적 가정의 하위변인에서 대학생활적응의 하위변인 간의 상관계수(r=-.38~.35,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우관계의 하위변인인 갈등 및 불신과 대학생활적응의 하위변인인 대학환경적응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주요 하위변인 중 대학생활적응과 교우관계의 하위인 사회적응과 갈등해결 상관은 r=.35(p<.00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활적응과 역기능적 가정을 살펴보면, 개인정서적응과 문제의 부모가 r= -.38(p<.00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 대학생의 교우관계, 역기능적 가정,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계수

구분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	대학환경적응
인정과관심	.23***	.31***	.19***	.25***
갈등해결	.16**	.35***	.30***	.30***
갈등과불신	-.10*	-.10*	-.19***	-.04
도움과지도	.20***	.27***	.13**	.23***
교제와오락	.17***	.28***	.28**	.17***
친밀한의사교환	.14**	.26***	.16**	.20***
문제의가정	-.10*	-.19***	-.29***	-.18***
문제의부모	-.15**	-.20***	-.38***	-.16**
가족갈등문제	-.11*	-.22***	-.34***	-.14**
역기능적가정	-.11*	-.23***	-.32***	-.17***

*p<.05, **p<.01, ***p<.001

2. 대학생의 교우관계, 역기능적 가정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활적응의 하위변인에 대한 교우관계, 역기능적 가정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IF) 지수를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공차한계는 .558~.961, 팽창요인은 1.000~1.824의 분포를 보여 독립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대학생활적응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단계적으로 투입되었을 때, 1단계에서 대학생활적응 전체에 대해 교우관계의 갈등해결이 11%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역기능적 가정의 문제부모가 추가되어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설명력이 5%로 증가되어 16%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3단계에서 인정과 관심이 추가되어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설명력이 1%가 증가되어 17%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적응 전체에 대한 변수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갈등해결(β=.19, p<.01), 문제의 부모(β=-.20, p<.001), 인정과 관심(β=.15, p<.05)의 순의로 나타났다. 다음, 대학생활적응의 각 하위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단계적으로 투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적응의 경우 1단계에서 교우관계의 인정과 관심이 학업적응 변량의 5%를 설명하고 있으며, 2단계에서는 학업적응에 대한 설명력이 1% 증가해 6%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적응에 대한 변수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인정과 관심(β=.21, p<.001)이 가장 큰 영향을 가지는 변수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은 문제의 부모(β=-.11, p<.05)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응의 경우, 1단계에서 갈등해결은 사회적응 변량에 대해 12%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사회적응 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2% 증가해 14%의 설명력을 보였다. 3단계에서는 사회적응 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1%로 증가하여 15%의 설명력을 보였다. 사회적응에 대한 변수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갈등해결(β=.23, p<.001)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변수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영향력을 가지는 변수 역기능적 가정(β=.16, p<.01), 인정과 관심(β=.13, p<.05)로 나타났다. 셋째, 개인정서적응의 경우, 1단계에서 문제의 부모는 개인정서적응 변량에 대해 14%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개인정서적응 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4% 증가하여 18%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3단계에서는 개인정서적응 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1% 증가하여 19%의 설명력을 보였다. 그리고 4단계에서는 개인정서적응 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1% 증가해 20%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서적응에 대한 변수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문제의 부모(β=-.22, p<.0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갈등해결(β=.18, p<.001), 가족갈등문제(β=-.14, p<.05), 갈등과 불신(β=-.10, p<.0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대학생의 교우관계, 역기능적 가정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모형	독립변인	종속변인	B	β	t	R^2	수정된 R^2	F
1	인정과관심	학업적응	1.01	.23	4.72***	.05		22.35***
2	인정과관심 문제의부모		.91 -.97	.21 -.11	4.22*** -2.23*	.06	0.1	13.76***
1	갈등해결	사회적응	3.87	.35	7.47***	.12		55.90***
2	갈등해결 역기능적가정		3.50 -.76	.31 -.16	6.69*** -3.49**	.14	.02	34.82***
3	갈등해결 역기능적가정 인정과관심		2.56 -.72 .52	.23 -.16 .13	3.76*** -3.34** 2.11*	.15	.01	24.91***
1	문제의부모	개인정서적응	-2.50	-.38	-8.15***	.14		66.48***
2	문제의부모 갈등해결		-2.14 1.98	-.32 .22	-6.92*** 2.67***	.18	.04	45.90***
3	문제의부모 갈등해결 가족갈등문제		-1.49 1.91 -.61	-.23 .21 -.15	-3.73*** 4.54*** -2.49*	.19	.01	33.06***
4	문제의부모 갈등해결 가족갈등문제 갈등과불신		-1.52 1.62 -.59 -.41	-.22 .18 -.14 -.10	-3.81*** 3.65*** -2.39* -1.99*	.20	.01	25.97***
1	갈등해결	대학환경적응	1.80	.30	6.24***	0.9		39.18***
2	갈등해결 문제의가정		1.64 -.57	.27 -.13	5.62*** -2.59**	.10	.01	23.15***
1	갈등해결	대학생활적응 전체	9.21	.34	7.33***	.11		53.64***
2	갈등해결 문제의부모		7.77 -4.19	.29 -.21	6.12*** -4.54***	.16	.05	38.42***
3	갈등해결 문제의부모 인정과관심		5.22 -4.09 1.41	.19 -.20 .15	3.17** -4.45*** 2.40*	.17	.01	27.85***

*p<.05, **p<.01, ***p<.001

넷째, 대학환경적응의 경우, 1단계에서 갈등해결은 대학환경적응 변량에 대해 9%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대학환경적응 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1% 증가해 10%의 설명력을 보였다. 대학환경적응에 대한 변수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갈등해결(β=.27, p<.0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문제의 가정(β=-.13, p<.01)로 나타났다.

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교우관계와 역기능 가정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학생의 교우관계, 역기능 가정,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대학생의 교우관계, 역기능 가정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에 대한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총 415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교우관계, 역기능 가정,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대학생활적응의 하위변인인 대학환경적응과 교우관계의 하위변인인 갈등과 불신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는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활적응의 하위변인 중, 학업적응은 인정과 관심, 사회적응은 갈등해결, 개인정서적응은 문제의 부모, 그리고 대학생활적응은 갈등해결이 가장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인 친구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준다는 김종운과 김지현(2013), 장성화와 진석언(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1][26]. 그리고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역기능 가정과 대학생활적응간의 관련성 역시 선행연구들[6][11][12]을 지지하며 일맥상통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각 변인들 간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는 중다회귀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둘째, 대학생의 교우관계, 역기능가정의 하위변인들을 예측변인으로 설정하고, 대학생활적응의 하위변인들을 준거변인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의 학업적응에서 교우관계의 인정과 관심, 역기능 가정의 문제의 부모가 회귀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학업적응에서 인정과 관심이 가장 큰 설명력 5%(R^2=.05)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모형 1). 여기에 역기능 가정의 하위변인 중 문제의 부모가 더해지면 추가적으로 1%의 설명력(R^2)을 더 갖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교우관계의 갈등해결, 갈등과 불신, 도움과 지도, 교제와 오락, 친밀한 의사교환이, 역기능 가정의 문제의 가정, 가족갈등문제, 역기능 가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의 사회적응에서의 회귀식은 교우관계의 갈등해결과 인정과 관심이, 역기능 가정에서는 역기능적 가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예측변인에 대한 설명력(R^2)은 갈등해결이 가장 큰 설명력(R^2) 12%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모형 1). 그리고 역기능 가정의 역기능적 가정이 더해지면 추가적으로 2%의 설명력(R^2)을 갖게 되고(모형 2), 교우관계의 하위변인인 인정과 관심이 추가되면 부가적인 설명력(R^2)은 1%로 나타났다(모형 3). 그러나 교우관계의 갈등과 불신, 도움과 지도, 교제와 오락, 친밀한 의사교환이, 역기능 가정의 문제의 가정, 문제의 부모, 가족갈등 문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개인정서적응에서의 회귀식은 교우관계의 갈등해결, 갈등과 불신이, 역기능 가정은 문제의 부모, 가족갈등 문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예측변인에 대한 설명력(R^2) 14%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모형 1). 그리고 교우관계의 하위변인인 갈등해결이 더해지면 추가적으로 4%의 설명력(R^2)을 갖게 되고(모형 2), 역기능 가정의 하위변인인 가족갈등 문제가 추가되면 부가적인 설명력(R^2)은 1%로 나타났으며(모형 3), 교우관계의 갈등과 불신이 추가되면 부가적인 설명력(R^2) 1%로 나타났다(모형 4). 그러나 교우관계의 하위변인인 인정과 관심, 도움과 지도, 교제와 오락, 친밀한 의사교환이, 역기능 가정의 하위변인인 문제의 가정, 역기능적 가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대학환경적응에서 회귀식의 교우관계의 갈등해결이, 역기능 가정의

문제의 가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예측변인으로 갈등해결이 가장 큰 설명력(R^2) 9%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모형 1). 그리고 역기능 가정의 문제의 가정이 더해지면 부가적으로 설명력(R^2)은 1%로 나타났다(모형 2). 반면, 교우관계의 인정과 관심, 갈등과 불신, 도움과 지도, 교제와 오락, 친밀한 의사교환이, 역기능 가정의 문제의 부모, 가족갈등 문제, 역기능 가정은 유의한 예측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의 전체에서 교우관계의 하위변인인 갈등해결, 인정과 관심이, 역기능 가정의 하위변인인 문제의 가정, 가족갈등문제, 역기능적 가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활적응의 전체에서 가장 큰 설명력(R^2)은 갈등해결(11%)로 나타났다(모형 1). 여기에 역기능 가정의 하위변인인 문제의 부모가 더해지면 추가적으로 5%의 설명력(R^2)을 갖게 되지만(모형 2), 모형 3의 경우에 있어서 교우관계의 인정과 관심이 추가되면 부가적인 설명력(R^2)은 1%였다. 즉, 대학생활적응이 낮을수록 교우관계의 갈등해결, 인정과 관심이 그리고 역기능 가정의 문제의 부모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반면, 교우관계의 하위변인인 갈등과 불신, 도움과 지도, 교제와 오락, 친밀한 의사교환이, 역기능 가정의 하위변인인 문제의 가정, 가족갈등문제, 역기능적 가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우관계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준다는 김종운과 김지현[1], 김지현[22], 이현정[29], 김기형[30]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역기능 가정이 대학생활적응을 예측해준다는 송정애와 정정순[6], 장성화, 구승신, 이주연[12], 박유하[23], 한혜준과 이화자[24]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하겠다. 교우관계와 역기능 가정이 대학생활적응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교우관계의 갈등해결, 인정과 관심, 그리고 역기능 가정의 문제의 부모가 대학생활적응을 예측해 주는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교우관계가 높은 대학생과 역기능 가정 수준이 낮은 대학생은 대학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래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하며, 인정과 관심을 받지 못하고, 갈등과 불신, 문제의 부모, 역기능적 가정 등의 스트레스를 잘 해결하지 못하는 대학생들은 대학생활 부적응을 가져 올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학교나 가정에서 교우관계를 다룰 수 있는 사회성 교육과 부모교육 등을 통하여 심리적 감정 및 정서를 어린시절 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대학생활적응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들은 부모님 지도와 보호를 받던 중·고등학교 시절과는 달리 자율적인 삶을 추구하고 가족으로부터의 독립으로 나아가는 전환기로써 심리적 독립, 자아 정체성 확립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대학생활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는 교우관계와 가정적인 측면에서 개인과 정서지지가 작은 대학생들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할 수 있도록 개인상담과 가족상담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정서에 주의를 기울이고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정서와 멘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대학생들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우관계, 역기능 가정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위한 제한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에 소재한 3개 사립 대학교에서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415명을 대상으로 임의표집 하였으므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표집하여 재검증할 필요성이 잇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1학년에서 4학년까지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지만, 표집된 학년별 수가 일정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학년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심리 검사를 사용하였기에 자기방어와 같은 다양한 문제점과 불성실한 오류를 완벽하게 해소하지 못한 한계점이 보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실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연구의 타당성을 높여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독립변수 외에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대학생활적응을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변인을 고려

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1] 김종운, 김지현, "대학생의 부모애착과 사회적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9권, pp.248-259, 2013.

[2] P. J, Lustman., C. J, Sowa, and K. J, O'Hara, "Factors influencing college student health: Development of the psychological distress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31, pp.28-35, 1984.

[3] 김은정, "대학생들의 학업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 연세상담연구", 제8권, pp.85-114, 1992.

[4] 권석만, *인생의 2막 대학생활,* 학지사, 2010.

[5] H. Gerdes and B. Mallinckrodt, "Emotional, social, and academic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s: A longitudinal study of retention,"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Vol.72, pp.281-288, 1994.

[6] 송정애, 장정순, "전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가족기능과의 관계에서 대인관계의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15권, 제1호, pp.119-144, 2010.

[7] R. W. Barker and B. Siryk,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SACQ) manual,* CA: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1989.

[8] 조명희, 박수선, "자아분화수준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연구", 학생생활연구, 제17권, 제1호, pp.88-95, 1999.

[9] 백지숙,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이 자아존중감 대학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45권, pp.127-137, 2000.

[10] 강유진, 문제우, "청소년 학교적응에 대한가족요인의 영향; 가족 배경요인과 가족관계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한국청소년연구, 제16권, 제1호, pp.283-315, 2005.

[11] 윤향숙, 황윤미, 김덕범, 장성화, "대학생의 자아분화, 스트레스, 정신건강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포럼, 제10권, 제2호, pp.1-25, 2011.

[12] 장성화, 구승신, 이주연, "대학생의 부모양육태도, 정신건강이 다차원적 완벽주의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2호, pp.67-83, 2013.

[13] 하정희, 정은선, 송수민,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성취목표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제11권, 제4권, pp.1375-1392, 2010.

[14] A. J, Fuligni and J. S. Eccles, "Perceived parent-child relationship sand early adolescents' orientation toward peers," Developmental Psychology, Vol.29, No.4, pp.622-632, 1993.

[15] 양혜선, *애착유형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16] 이사라, 박성연, "부모의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가 아동의 자아개념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적 연구," 아동학회지, 제22권, 제4호, pp.17-32, 2001.

[17] Y. B. Li, A. D. Lynch, C. Kalvin, J. J. Liu, and R. M. Lerner, "Peer relationships as a context for the development of school engagement durin gearly adolesc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Vol.35, No.4, pp.329-342, 2011.

[18] K. H. Rubin, K. M. Dwyer, C. Booth-LaForce, A. H. Kim, K. B. Burgess, and L. Rose-Krasnor, "Attachment, friendship, and psychosocial functioning in early adolescence,"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Vol.24, No.4, pp.326-356, 2004.

[19] 보건복지부, *국제이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정책방안보고서,* 보건복지부.

[20] 박준성, 안혜정, 정태연,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생활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

존감, 부모자녀관계, 또래관계의 조절효과", 스트레스연구, 제21권, 제1호, pp.51-60, 2013.
[21] 조수진,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정도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22] 김지현,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정신건강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배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23] 박유하, *대학생의 가족응집성 및 자아분화 수준의 대학생활적응도와 관계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24] 한혜준, 이화자, "분리개별화와 가족응집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정관리학회지, 제24권, pp.187-194, 1994.
[25] 김미선, *청소년 전환기 아동의 가족건강성과 긍정·부정 정서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26] 장성화, 진석언, "대안학교 학생들의 학교적응 관련변인들의 인과적 구조분석," 열린교육연구, 제18권, 제2호, pp.25-50, 2010.
[27] W. M. Bukowski, A. F. Newcomb, and B. Hoza, "Friendship conceptions among early adolescents: A longitudinal study of stability and chang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Vol.7, pp.143-152, 1987.
[28] J. G. Parker and S. R. Asher, "Peer relations and social adjustment: are friendship and group acceptance distinct domauns?" In W. M. Bukowski(Chair), Properties, process, and effects of friendship relation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Sympoium conducted at the bir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cevelopment, kansas city. Mo, 1989.
[29] 이현정, "아동이 지각한 교우관계의 질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우논총, 제12권, pp.191-220, 1994.
[30] 김기형,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가족관계, 교우관계, 학교적응도와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31] 김홍규, *상담심리학*, 형설출판사, 2003.
[32] 민동일, 양정미, "청소년이 지각한 가정의 역기능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교육발전연구원, 제22권, 제2호, pp.45-66.
[33] R. W. Baker and B. Siryk,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31, pp.179-189, 1984.

저 자 소 개

장 성 화(Sung-Hwa Jang) 정회원

- 2000년 12월 : 건국대학교(공학사)
- 2005년 8월 : 건국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10년 2월 : 건국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10년 3월 ~ 2012년 2월 : 세계사이버대학교 교수
- 2012년 3월 ~ 2012년 12월 : 전북과학대학교 교수
- 2013년 1월 ~ 현재 : 공군사관학교 인문학과 교수

<관심분야> : 청소년 중독(인터넷, 휴대폰), 학교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리더십, 군상담

천 영 희(Young-Hee Chun) 정회원

- 2012년 2월 : 경북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문학석사)
- 2012년 4월 ~ 현재 : 한서기독재단
- 현재 :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 현재 : 한국진로코칭연구원

<관심분야> : 사회복지, 청소년상담, 학교폭력, 기독상담, 교정상담

함 성 수(Seong-Soo Ham) 종신회원

- 1993년 2월 : 중앙대학교(문학사)
- 1996년 8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문학석사)
- 2011년 2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박사수료
- 1996년 7월 ~ 현재 : 공군사관학교 인문학과 교수

<관심분야> : 리더십, 조직심리, 군상담